

3월 2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2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이틀째 약세 [다우: 7,278.38pt (-1.65%)]	전영업일에 이어 금융주를 중심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증가했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며, 뉴욕증시는 이틀째 조정일 이어갔음.
금융주 하락지속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 씨티 0.8%, J.P모간이 6% 떨어지는 등 금융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음. 거액 보너스 스캔들 속에서도 급반등세를 이어오던 AIG도 25.31% 급락반전했음. 설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이날 앞으로 5년간 은행 파산으로 인해 보험기금이 65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금융시장 회복 기대를 냉각시켰음.
유가 소폭 하락	최근 급등세에 대한 경계심리와, 달러화 반등, 만기일 영향 등이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이날 청산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55센트(1.1%) 떨어진 51.06달러로 마감했음.
차입공매도 거래 작년 10월 이후 급감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는 규제 이전 시장전체 거래의 4~5%에 달했으나 유동성공급(LP)과 헤지목적에 대해서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한 이후 시장전체 거래의 0.1~0.3% 수준으로 감소.
국내주식형 펀드 나홀로 연속 증가세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전일대비 981억원 증가한 138조 9,910억원을 기록.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전일대비 1,231억원 늘어난 84조5,718억원을,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은 250억원 감소한 54조 4,192억원을 나타냈음.
금호생명 유상증자서 우리사주 100% 청약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호생명 임직원들은 지난주 말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보통주 600만주(주당 5,000원), 300억원 규모의 청약에 나섰음. 이는 총 2,000억원 규모로 진행중인 금호생명 유상증자 중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비율 15%를 모두 다 채운 것임.
"3,000억 더 들여 일자리 3.5만개 추가 창출"	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벤처`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 이는 미취업 지방대 졸업자를 중심으로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벤처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 6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6,600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될 예정.

제목	주요 내용
한·EU FTA, 최종답판 남았다	23일과 24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협상이 서울에서 개최. 이번 협상을 마지막으로 양측은 사실상 협상단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달로 예정돼 있는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 이번 협상에서는 공산품·농산품 관세철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협의. 또 자동차 비관세, 관세환급,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 서비스 등의 잔여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
EU, IMF에 대출 제공.. 동유럽 지원도 확대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20일)부터 이틀간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서 각국 수장들은 미국의 경기부양 촉구에 대한 거부를 결정. 오는 4월2일 예정된 G20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기로 의견을 조율. 다만, 유럽 수장들은 필요하다면 글로벌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게나마 더 늘리기로 결정.
中, 철강-車 업계 통폐합 본격 시작된다	국무원은 21일 홈페이지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을 통해 '자동차, 철강 산업 조정과 진흥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체간 인수 합병을 촉진한다고 발표. 발표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인수합병을 비롯, 자주생산력, 기술개발 등 종합 발전계획이 추진.
中 "경기부양책이 8% 성장률 달성에 기여"	중국의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1.5~1.8%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장 유타이 중국 국가위원회 개발리서치센터 부소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개발 포럼에서, 기존에 발표된 경기부양책이 중국의 경제성장률 8%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발표.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